

무허가 축사 582곳 중 적법화 22곳 불과

익산시 무허가 축사 무더기 행정처분 위기

익산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공업불에 그치고 있다. 수백곳의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에 나서고 있지 않음에도 익산시의 소극적 행정으로 상당수의 무허가 축사가 행정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따라 2013년 2월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축사를 법적 요건에 맞도록 주변 정비 등을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3월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적 무허가 축사 중 일정 규모이상의 축사에 대해 지난해 3월까지 적법화를 추진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축사는 올해 3월과 오는 2024년 3월까지 2단계와 3단계로 나눠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줬다. 익산지역의 무

허가 축사는 모두 582곳으로 지난해 3월 21일까지 적법화를 마친 대상 축사는 22곳에 그치고 있다. 무허가 축사의 경우 대부분이 1단계 적법화 기간에 개선해야 하는 축사임에도 이행률이 저조해 시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시는 적법화 참여를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는 축사는 562개 축사 중 8곳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무허가 축사들이 적법화에

나서지 않으면 유예기간 후 자진 철거는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 철거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상황에 놓여 시의 대응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적법화에 나서겠다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582곳으로 이행을 마친 축사는 22곳이다"면서 "건축·환경·개발행위 부서가 참여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통해 농가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시스



군산시 지역 농특산물 쇼핑물 '군산팜'이 특별행사가 잘 마무리됐다

명절맞이 농특산물 쇼핑물 군산팜 특별행사

군산시 농특산물 쇼핑물 '군산팜'이 설 명절 특별행사

군산시 대표 지역 농특산물 쇼핑물 '군산팜'이 설 명절을 앞두고 펼친 특별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농가 판로개척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해 시 직원과 유관기관 및 군산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시식 전 시?판매가 진행됐다. 군산의 특산물인 ▲울외장아찌 ▲박대 ▲조기 ▲모시잎송편 ▲흰쌀쌀보리 ▲한과 등 20여개의 상품들을 전시 판매하여 약 1천5백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이벤트 기간 중 최고 구매고객(1~5등) 5명, 행운의

순번(1,10,20...등) 구매고객 10명, 우수 이용후기 작성 고객 10명 등 총 25명에게 최대 5만원의 적립금 지급 및 구매고객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으며, 농특산물 구매자에 한하여 홍보용 쌀 보리를 선착순으로 증정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구매함으로써 시민들이 지역 사랑을 느끼길 바라며, 농가의 판로개척 및 품질좋은 소비처 확보를 위해 직거래 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선정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가 고용 및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2019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당초 올해 4월 4일까지 운영예정이었던 고용위기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2019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3억8천만원의 지원받아 12월 31일까지

연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지난해의 경우 총 1만1,070건의 상담 실적과 2,305명의 인원이 참여해 262명이 취업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올해는 8개 장단지 신산업 전문 직업훈련교육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기기능사 양성과정 ▲자동차 전문인

력 양성과정이 진행되며, 취업의욕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취업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마음관리력 강화 및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창업 지원사업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박남균 센터장은 "GM군산공장 퇴직자들의 실업급여 종료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취업·전직 창업 직업훈련

에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며 "군산의 취업일자리로서 새로운 출발의 디딤돌 역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올해부터 속도감 있고 극대화 된 취업성공을 위해 월1회 '희망 찾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청암산 멧돼지 포획 나서기로

군산시가 평소 많은 탐방객들이 찾는 청암산의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멧돼지 포획활동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탐방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청암산 입산을 통제하고 총기를 이용한 멧돼지 포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암산은 습지, 대나무 숲, 물속에서 자라는 왕버들나무 군락지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있어 군산시민 뿐만 아니라 외지인까지 연간 약 20만 명이 찾는 생태관광의 명소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마리의 멧돼지 서식이 확인돼 청암산 인근주민과 탐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근 지역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포획활동이 예정됐다는 것. 시는 군산경찰서 협조 하에 탐방객 입산을 통제하고 '군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도움을 받아 청암산에 서식하는 멧돼지 포획작업이 진행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양일간 포획활동으로 청암산 탐방이 제한되니 청암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이승복 군산시 부시장, 가축농가 전염병 방역 점검

설 명절 대비... 근무자 격려

설 명절 연휴에 귀성객들의 고향 방문이 많아질 것에 대비하여 지난 28일 이승복 군산시 부시장이 지역 내 거점소독소 등의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차단방역을 위해 힘쓰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승복 부시장은 차단방역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AI 및 구제역을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항상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꼼꼼히 소독을 실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군산시는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및 축산차량의 소독과 출입인원을 철저히 통제하고, 구제역 백신

함체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구제역 차단방역의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우례류 사육농가에 즉시 상황전파를 했고 임상 예찰을 실시했다"며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총동원하여 가축사육농가의 예방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이상증상이 발생할 시 즉각 신고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설 연휴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 운영

군산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기간에 시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편성해 운영한다. 귀성객과 관광객이 방문이 많아 찾아올 것으로 만큼 안전과 시민불편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로 교통, 수도 하수, 청소 환경, 보건, 식품 등 8개 분야 구성된 비상 근무반을 편성해 ▲도로 파손 ▲불법주정차 차량 지도 ▲상하수도 긴급보수 등 행정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반전화(☎120), 핸드폰(☎063-120)으로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긴급 상황에 대해 처리하는 것은 물론,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생활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귀성객, 시민들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익산시, 설 명절 비상응급 체계 유지

익산시가 설 명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응급 체계를 유지한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응급 진료기관과 문 여는 병·의원·약국 323개소를 지정·운영한다. 시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원광대학병원과 익산병원, 원광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한다. /김재훈 기자

군산소방서, 농촌지역 숙박시설 안전교육 실시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지난 28일 농촌지역 민박 및 펜션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동절기 화재발생 위험에 따른 민박사업자들의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민박 및 펜션 화재사고 사례와 각종 안전사고 대처요령, 소화기 사용법 및 소방시설 작동상태 점검방법, 시설물 안전관리 방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 대부분의 민박·펜션시설에 적용되는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

경보감지기의 설치기준을 교육하고 설치 촉진을 위한 홍보도 병행했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민박·펜션시설 대부분이 규모가 크지 않으며 기초 소방시설 설치·관리만 잘 돼도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기초소방시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함은 물론 관리유지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소방서는 올해 농촌지역 숙박시설을 포함, 지역 내 모든 시설에 소방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소방서는 민박 및 펜션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